

6»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안전

8» 인터뷰 - 쇼트트랙 기대주 이문현(스포츠지도학 2015)

학사다이러리 - 수강신청 모의테스트 실시안내

2015 등록금 논의 올해도 1월 넘기나

등록금 논의 제자리걸음
이시은 기자 d1ldms77@khu.ac.kr

양 캠퍼스 '등록금 책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등책위)'가 모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다. 서울캠퍼스(서울캠)의 경우 제2차 회의가 지난 15일 개최됐으나, 예산안에 관한 소모적 논쟁만 반복한 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이후 논의마저 '명확한 예산안 제공'을 주장하는 학생대표와 학교 간의 줄다리기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역시 지난 22일 제1차 회의가 열렸지만, '3장짜리 가예산 자료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양 캠퍼스 등책위에서 학생대표들은 '가예산 자료'가 아닌 '본예산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등책위에서도 대학본부 측이 예산자료를 늦게 제공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경대학 학생회 권예하(언론정보학 2010) 회장은 "학교 측이 반복되는 자료요청에도 답이 없었다"며 "등책위 직전에 제공한 예산자료도 매우 부실해 사실상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제캠 등책위 학생대표들 역시 입장표명문에서 '학교측의 늦은 자료 전달과 불충분한 자료로 인해 어떠한 입장으로 표명할 수 없었다'며 '더불어 같은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캠에 비해 훨씬 늦은 시기에 제공받은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대학본부 측은 '현실론'으로 반박했다. 현재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1만 3,000여 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캠 제2차 등책위에서 미래정책원 관계자는 "학교

측은 다양한 항목에 대해 세심하게 예산안을 편성한다"며 "모든 자료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예산안에 대한 관련 근거가 정확하다는 것만 믿어 달라"고 말했다.

결국 오는 30일 신·편입생 등록금 가고지서 발행을 앞둔 상황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1년, 2014년에는 학부 등록금액의 뒤늦은 확정에 따라 1학기 신·편입생에 대한 학교측의 차액 환불이 이뤄졌다. 대학본부는 논의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등록금 가고지 시일이 되자 인상안을 전제로 한 가고지서를 발행했다.

이후 인상안에 반발한 학생회와 뒤늦은 합의를 통해 등록금 동결안을 내놓았다.

올해 대학본부와 학생회 측은 이같은 '환불 사태'를 피하기 위해 서울캠의 경우 예년보다 2주 정도 빠른 시점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 같은 논의가 한 번의 합의로 끝나는 것 또한 아니다. 우리학교 등록금 책정은 '양 캠퍼스 학부·대학원 등책위 논의·조율 - 등심위 심의·권고 → 양 캠퍼스 등책위 최종 결정'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긴 과정에서 몇 번의 '충돌'만 발생해도 전체적인 등록금 확정에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결국 올해의 논의는 다음 서울캠 등책위 제3차 회의로 넘어갔다. 대학본부 측에서 1월 내 예년 수준의 예산안 자료를 마련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돼, 3차 회의는 내달 개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본부 측은 "이달 마지막 주 내로 자료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직후 등록금에 대해 빠르게 논의하는 학생회 측의 입장에 대해 "일



정 조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제캠 등책위 제2차 회의 역시 날짜를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등록금심의위원회' 역시 개최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1일 약학대학 등록금 가고지안이 동결 금액으

로 발송된 바 있다. 총학생회 강필준(자율전공학 2012) 부회장은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30일 있을 학부 등록금 가고지안 또한 동결금액으로 발송되도록 하겠다"며 "지난해와 같은 '일방적 인상문자'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Newsmaker

를 챔스 '버프걸'
조수경 (생물학 2013) 양



“관객과 선수 모두에게 에너지 주고 싶어”

이진우 기자 urusa93@khu.ac.kr

일찍이 '스타크래프트'에서 시작된 e스포츠 열풍이 현재는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 LOL)'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롤 챔스)'는 현재 우리나라 e스포츠 프로리그 중 현재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 대회의 분위기 메이커인 '제6대 버프걸'로 우리학교 조수경(생물학 2013) 양이 선정됐다. 첫 번째 이공계 출신 '버프걸'이라는 점으로 주목을 받은 조양을 지난 19일 만났다.

'버프걸'은 스프링, 썸머, 윈터 총 3시즌에 걸쳐 진행되는 '롤 챔스' 경기장에서 장내 안내와 각종 이벤트 진행을 담당한다. 조수경 양은 이 '버프걸'을 올 스프링 시즌동안 맡게됐다. '롤 챔스' 팬들과 관계자 사이에서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만큼 그는 바쁘게 경기장을 누닌다. 하지만 '롤 챔스'를 매우 좋아하는 그에게 바쁜 활동은 오히려 즐거움이다. 그는 "롤 챔스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대회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남학생 비율이 높은 생물학과 특성상 자연스럽게 롤을 접하게 됐다는 그는 "공강 시간마다 '소환사의 협곡'을 찾았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하지만 롤이 쉽지 않았던 그는 자연스럽게 프로들의 플레이를 보기 위해 '롤 챔스'를 챙겨봐왔다. 덕분에 한때 "소나"로 궁이나 잘 써라"라며 친구들에게 구박받기도 했던 그는 현재 실버 티어다. "시간이 부족해서, 랭크 게임을 많이 못했다. 골드 티어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귀띔해줬다.

자신이 좋아해서 시작한 '버프걸' 활동이지만 어려운 점도 존재한다. 특히 그는 '버프걸'로서 중립

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구단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 때는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는 "좋아하는 구단은 있지만 말씀 드릴 수는 없다"며 "대신 마음속으로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인터뷰 도중 좋아하는 구단에 대해 이야기 할 때엔 한껏 상이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가장 좋아하는 선수에 대해선 "이상형"과 닮았다"고도 전했다.

“지난해 국제캠퍼스 롤대회 부러웠다. 서울캠퍼스에서도 개최하도록 노력해보겠다”

그는 경기장에서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고 SNS에 매 경기 현장스케치를 게시함으로써 팬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팬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게임을 고안하는 등의 노력도 돋보였다. 조양은 "선수, 팬, 관계자 모두에게 나의 에너지를 주고 싶다"며 "경기장에 게시된 모든 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내에서도 e스포츠관련 활동이 활발해지길 바랐다. "지난해 국제캠퍼스에서 롤 대회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서울캠퍼스에서도 이런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e스포츠 동아리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인터뷰 내내 그는 e스포츠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비쳤다. 조양은 "좋아하는 선수들이 중국 리그로 나가는 것을 봤다. 국내 선수들이 최고 기량 가졌음에도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팬들의 관심을 경기장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수많은 사람들의 광대한 인간서사, 《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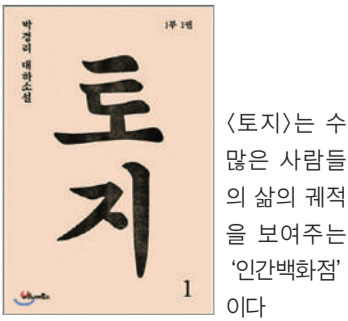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㉔

김연숙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누가 나에게 <토지>가 어떤 책이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겁나……”

<토지>는 겁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겁나 많이 지지고, 볶고, 물고, 뜯고, 죽고…… 그 와중에 또 겁나 많이 사랑하고, 헤어지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런 이야기다. 만약 질문한 이가 내게 장난하

냐고 눈을 흘기면, 정색을 하고 다시 말할 터이다. 경남 하동 평사리의 지주집 최참판댁이 몰락하고 나서, 무남독녀인 서희가 빼앗긴



재산을 되찾고 다시 집안을 일으킨 이야기라고. 그러나 분명 나는 금세 돌아서서 이렇게 중얼거릴 거다. 그건 줄거리가 아니야, 이야기는 '겁나' 많아.

작가 박경리는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원고지 4만 장 분량의 <토지>(총 20권)를 써내려갔다. 26년의 기나긴, 그야말로 대장정이었다. 작가 스스로 말하기를, 목숨이 있는 이상 자신은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수술 후, 가슴에 봉대를 감은 채 소설을 쓰면서 나는 지금 악마에 사로잡힌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무엇일까. 한 인간의 삶에서... 소설이든 뭐든 좋다, 소설도 좋고 사랑도 좋고, 일도 좋고, 놀 거리도 좋고, 뭐든 좋은데 난 이걸 안하고는 살 수 없다는, 그 어쩔 수 없음은 무엇일까. 게다가 26년이라니, 도대체 삶을 송두리째 걸만한 것은 무엇일까, 아니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진심으로 찾아본 적은 있었던가.

<토지>를 처음 읽는 독자는 아마도 '서희'에게 제일 먼저 눈길을 뻗길 것이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온라인 '이슈스트림' 서비스 (media.khu.ac.kr/khunews/issue_stream)



매일 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시대 속에서, 중요한 이슈에 대한 흐름과 맥을 읽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학주보는 각 키워드별 관련 기사를 시기순과 호응도순으로 정리해, 독자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슈를 읽어낼 수 있도록 '이슈스트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기고

최경환 F학점 대자보 붙인

최휘엽(정치외교학 2012) 군 >>7면

